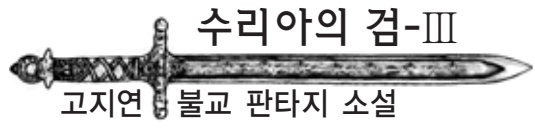


야. 그걸 꼭 지금 다 확인해야해? 얼른 나가야지!



사막의 세 머리 용 (5)

당황한 무니 일행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앞으로 쏟아졌다. 순간 무니가 "뛰야!"라고 소리치려하자, 난다가 얼른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급하게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들은 남카의 손짓에 따라 쭉르르 걸어가 벽 옆에 몸을 바짝 붙였다. 이어 말소리가 들려왔다.

"적어도 그 어린 녀석들이 거기 있는 동안은 마을 분위기가 잠잠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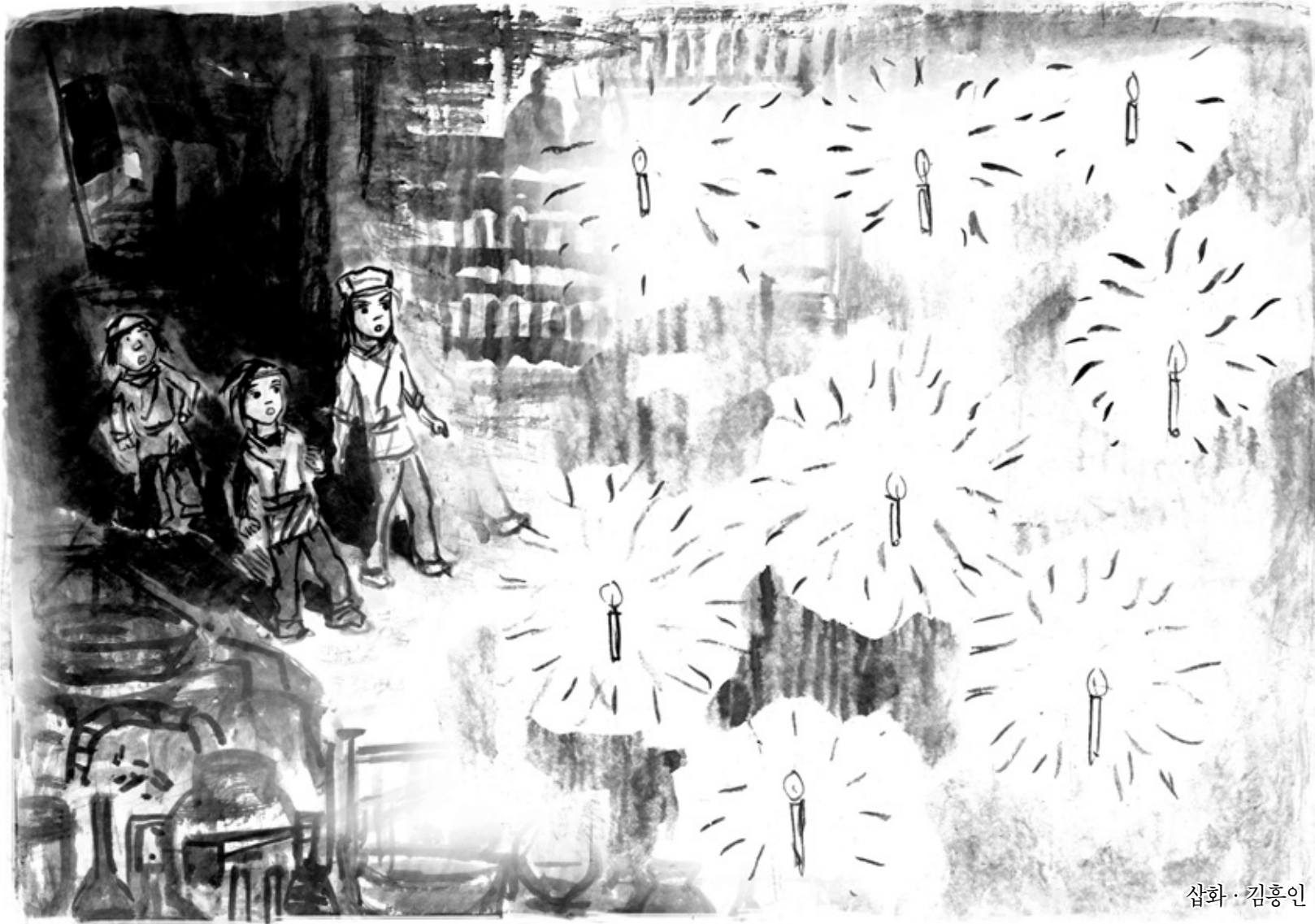
낮고 카랑카랑한 목소리, 아침에 들었던 촌장의 목소리였다.

"게다가 만약 정말 그 아이들 때문에 용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면, 그건 그걸로 최선의 결과겠지요. 누구도 애지중지하는 자기 자식을 내놓으려 하지 않으니까요. 촌장님께께 막내 아들 남카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목소리 역시 무니와 난다에게 낯설지 않았다. 아침의 그 남자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손짓으로 이동할 방향을 가리켰다. 아이들이 다시 남카의 뒤를 따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니가 난다에게 귓속말로 질문했다.

"그런데 저 녀석 지금 우릴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방금 그 남자네 집이겠지, 아침에 봤던."
잠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 쓰러져 가는 폐가로 도저히 집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장소였다. 얼기설기 짚으로 매운 구멍 때문에 거의 움막이나 마찬가지로 보였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집 밖으로 비쪽 뚫고 나온 원통 모양의 굴뚝이었는데, 하나로 이어지던 굴뚝이 위, 아래 두 개로 나뉘어 있어서 괴상해 보였다. 게다가 집 쪽으로 다가갈수록 뚝이 썩는 듯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 냄새에 잔뜩 인상을 구기던 무니와 난다는 그 지독한 냄새에 아침의 그 술 냄새도 희미하게 섞여있음을 곧바로 알아챘다. 무니가 말했다.

"확실히 그 주정뱅이 녀석의 술기운이 느껴지는 군."
그때 오는 내내 별 말이 없던 남카가 앞장서서 문



삽화 · 김홍인

대신 걸려있던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난다가 뒤따랐다.

"넌 여기 있어. 누가 오는 지 망 좀 봐줘, 알았지?"
무니가 칸타카에게 말했다. 조랑말은 늘 그랬던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다. 무니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키더니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남카의 조그만 등불에 드러난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여기저기 무엇이 들어 있는지, 혹은 들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자루들이 널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는 술병들이 널굴고 있었다. 벽 한 쪽에는 움막 같은 장소와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화덕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아궁이가 두 군데였으며, 이상한 모양의 병들이 그 구멍 앞마다 놓여 있었다. 이어서 불빛에 비춰 보이는 것들도 온통 병이었다. 특히 무슨 실험대인 듯 보이는 커다란 탁자 위에는 온갖 모양의 병들이 빼곡했고, 여러 가지 색깔의 암석과 금속이 섞여있었다. 무니는 어쩐지 이곳의 풍경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동안 정신없는 표정으로 남카의 등불을 따라 시선을 옮기던 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는 거지? 누가 사는 곳이라고?"
"연금술사."
무니와 난다의 눈이 마주쳤다.

"연·금·술·사? 그럼 아침의 그 주정뱅이가 바로연금술사라는 거야?"

남카는 흥분한 표정의 두 소년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니는 다시 어두컴컴한 방을 훑 둘러봤다. 이곳이 익숙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유리 영감의 오두막과도 매우 비슷했던 것이다.

연금술사를 찾았다는 뜻밖의 사실 때문에 잠시 멍했던 무니와 난다는 일단 자신들의 짐부터 찾기로 하고, 남카의 도움을 받아 온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을 환히 밝히지 못해 어두운 데다 집 안이 워낙 뒤죽박죽이라 한참을 뒤졌는데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화덕 근처는 그들이 근처에서부터 말을 수 있었던 약취가 심해서 다가가기가 꺼려질 정도였다. 무니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도대체 이 결정적인 역한 냄새는 뭐냐? 저 쓰레기에서 나는 거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유황 냄새야. 할아버지의 오두막에서도 가끔 이 냄새가 나곤 했어."
난다 역시 코를 막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곳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을 다 뒤져본 셈이 되자, 결국 화덕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벌써부터

말뚝이 떨어져 불만 비취주고 있던 남카는 그래도 여전히 안 되겠는지 냄새를 피해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 버린 상태였다. 다행히 금방 "찾았다!"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난다였다. 남카와 아예 구석까지 가있던 무니 역시 그쪽으로 급히 다가갔다. 그러나 난다가 찾아낸 것은 그들의 집이 아니라 아궁이 깊숙이에서 땅 밑으로 나 있는 커다란 구멍이었다.

"뛰야! 이게 '찾았다!'라고 외칠 만큼 대단한 거야? 오야! 냄새 하나는 진짜 대단하다."
아궁이 안을 들여다보던 무니는 코를 틀어막았다.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문양 하나가 들어왔다. 완전히 겹쳐지기 직전으로 보이는 태양과 달이었다. 무니는 유리 영감의 책장에서 비슷한 걸 본 기억이 났다. 그 두 원을 겹쳐져 타원형이 만들어졌고, 그것은 웬지 아궁이 안쪽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았다.

"설마 여기에 들어가자는 거야?"
"야, 살살이 다 뒤졌는데도 못 찾았잖아? 그럼 그 큰 점들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겠냐."
계속 인상을 쓴 채로 아궁이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에게 난다가 말했다. 무니는 이윽고 결심한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아궁이 안쪽으로 기어올라 시작했다. 입과 코를 옷으로 가린 난다도 무니를 따

라 들어가자, 마지막으로 등불을 든 남카가 뒤를 따랐다.

구멍은 생각보다 깊었고, 남카의 실수로 등불마저 꺼지자 완전한 어둠 속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무니가 괴로워하며 말했다.

"간하는 거 다음으로 싫은 게 이런 어둠이야."
그러나 다시 점점 시야가 분명해지더니 막 다른 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거지?"
맨 마지막으로 기어오던 남카가 난다에게 물었지만, 난다는 자신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때 앞서 가던 무니가 쿵하는 소리를 내며 막다른 벽 아래로 떨어졌고, "어, 어!"하는 사이 난다와 남카 역시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졌다.

"우와!" 맨 먼저 떨어진 무니가 입 밖으로 처음 낸 소리는 감탄사였다. 수많은 촛불이 환하게 밝히고 있는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넓었다. 벽을 따라 쪽 들어서 있는 장에는 책들과 각종 도구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가장 큰 책장에는 아까 아궁이 안쪽에서 봤던 것과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바로 위의 난장판이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아이들의 눈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촛불들이었다. 촛대가 벽에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데다가, 촛농이 하나도 녹아내리지 않아서 각각의 크기 그대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되게 넓은데? 벽 뒤편은 누워 잘 수 있겠다."
남카의 말에 무니가 뭐가 생각나듯 말을 보았다. "그럼 용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피신하면 안 돼? 이 정도 깊이로는 안 되냐?"

"글쎄. 연금술사는 도대체 언제 이런 걸 봤지? 마을 사람들 모두 몰랐어. 그러니까 이 촛불들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무니와 남카가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감탄하느라 넋을 빼놓고 있을 때에도 난다는 자신의 책가방을 찾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 "찾았다! 찾았다!"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난다는 자신이 지고 다니던 가방과 칸타카가 들고 다니던 상자까지 모두 열어보며 책과 물건들을 확인했다. 그 모습을 본 무니가 말했다.

"야. 그걸 꼭 지금 다 확인해야해? 얼른 나가야지."
남카 역시 연금술사가 곧 돌아올 지도 모른다고 무니의 말을 거들었다. 그러나 난다는 종이가 없던 시절에 주로 쓰던 진흙 판부터 양피지 묶음, 책가지 뒤죽박죽으로 꺼내 뚝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있었다. 그러더니 이윽고 "야!"하며 듣기도 무거운 정도인 두꺼운 책 한 권을 상자에서 꺼내들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이란 이름을 가진 사전이었다.

"휴. 그 사람이 책들을 이리저리 다 섞어놨어..."
그러더니 난다는 금세 책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야, 지금 그걸 꼭 봐야해? 그 사르나트진 뭘지 찾는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이 집 주인 녀석 돌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이리다 꼼짝없이 용한테 먹히길 기다리며 감혀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구."

<p>840호 불자 정보</p> <p>TEL 02) 2004-8215(직) 732-1522 FAX 02) 737-0696</p>	<p>조용한 토굴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김천시 지래면 신평리 • 대지 200평 • 건평 30평, 방3, 거실, 실내화장실 • 법당 11평, 마당 잔디, 주차공간 8대 • 가액: 5천 5백만원 <p>011-832-5074</p>	<p>인법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 방 3개중 1개는 법당 • 거실, 주방, 지장보살님 4자 •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모든 살림 집기 일체 • 월세 없이 1천만원에 인수 <p>010-4667-0866</p>	<p>사찰(금)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징: 눈물 흘리는는 약사여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사관 외벽 만다라선지,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등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입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한. ■ 입야 제의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010-4504-0174 <p>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p>	<p>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p> <p>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p> <p>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로만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p> <p>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4 단체인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p>35 친절상담</p> <p>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p> <p>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p> <p>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p>
<p>종단및 건물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등기된 종단과 건물 • 위치: 경기 양평군 단원편 • 대지 206평 • 건평 57평(1층, 2층) • 가액: 3억 9천 5백만원 <p>010-4562-1081</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하동 • 임야 총 2천평 • 현재 불사중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8천만원 <p>010-8681-1574</p>	<p>사찰(금)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토기) 20평 •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 38평(2층) 외 2동(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입야: 4,000여평 (수원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8억(조절가능) <p>010-3822-4565</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 시내 • 상가 12층 양도 • 대지 70평, 건평 80평 • 마당, 공양간 넓은 • 법당 50평이상 법회가능 현재 법회중 • 가액: 1억 4천 5백만원 <p>010-6561-6509</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층 요사채 30평 • 2층 요사채 24평 • 3층 법당 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 82평 <p>010-2637-6144</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경산시 점촌동 • 대지 93평 • 법당 7평 • 부대시설 요사채 3동 • 가액 1억 <p>011-9370-4043</p>		